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2년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평가
니조식품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

거시경제 동향

최근 경제동향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 현장의 소리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1월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2012년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평가

※ 본 자료는 2013년 2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젊은 농업인 농지확보
취급했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사업개요

- [개념]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농지 마련이 어려운 30대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대상] **만20세~39세 이하인 자**(1974.1.1.~1993.12.31. 출생한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단, **현재 농업인인 경우**는 농지 소유면적이 **3ha**이하인 자
- [지원내용] 우선지원

□ 2012년 사업평가 및 계획

- 2012년도에 2030세대 **2,164명**을 대상으로 **총 2,030ha**의 농지를 지원
 - 지원한 2030세대 2,164명은 기존 농업인 2,080명과 신규 창업농(귀농인 포함) 84명으로 구성
 - 지원농지 2,030ha는 '12년도 농지은행을 통한 **전체 농지지원 면적 13,697ha의 15%**에 해당
 - ※ 2030세대 지원비율: ('11) 10% (1,450ha/14,110ha) → ('12) 15% (2,030ha/13,697ha)
- 전체 지원받은 2,164명 중 기존 농업인 2,080명에게는 1,929ha를, 신규 창업농 및 귀농인 84명에게는 101ha의 농지를 지원
- 신규 창업농의 **농지확보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
- **2013년도에는 총 2,400ha 농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매년 1천여 명의 젊은 농업인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 ※ 농지은행사업 지원면적 비율: ('11) 10% → ('12) 15% → ('13 계획) 17%

주요 농정 이슈_2

니조식품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

※ 본 자료는 2013년 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유럽 3대 식품연구소¹⁾ 중 하나인 니조식품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키로」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개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2년~2015년(목표)
- (사업규모) 358만㎡(산업단지 232만㎡/배후도시 126만㎡)
- (사업비) 총 5,535억 원(국비 1,371, 지방비 634, 민간 3,530)
- (기대효과) 입주기업 매출 15조 원, 22천 명 고용 창출 전망

○ [사업구성]

- (산업단지) 식품기업 150개·연구소 10개 및 6개 기업지원 시설 등 입주
※ 고부가 기능성식품군 전통발효식품군 소재식품 및 기호식품군 등 집중 육성
- (배후복합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거·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입주

□ 투자주요 내용

- 니조식품연구소²⁾는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연구소 또는 지사를 설립한다는 계획
- 니조식품연구소와의 투자협약 체결은 **글로벌 품질안전센터 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국내·외 식품기업의 유럽지역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1) 네덜란드 NIZO, 프랑스 INRA, 네덜란드 TNO

2) 유럽 3대 식품연구소로서 니조식품연구소는 1948년 네덜란드 낙농연합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 연구센터 응용센터 가공센터(파일릿플랜트) 등 3개 센터로 나뉘어 운영 중에 있음.

거시경제 동향

최근 경제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2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종합평가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
- **대외적**으로는 **美재정지출 자동삭감 협상·유럽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대내적**으로는 **소비 부진·환율 변동·투자 개선세 지속여부** 등으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상존**

□ 부문별 평가

1) 고용

- **[12월 중 취업자(2,440만 명)]**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 증가, 고용률은 58.3%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
- **[12월 중 실업자(73.7만 명)]** 전년 동월대비 1.8만 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
- **[1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1,671만 명)]** 전년 동월대비 31.5만 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

2) 물가

- **[13.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대비 1.5%(전월대비 0.6%) 상승하여 3개월 연속 1%대 안정세 유지
- **폭설·한파**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전월대비 3.3%)했으나, **석유류 가격 하락**(전월대비 △0.5%)에 따라 **공업제품 가격**이 안정(전월대비 0.1%)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

- **[농산물·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전년 동월대비 1.2%(전월대비 0.4%),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도 전년 동월대비 1.4%(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안정적인 모습
- **[13.1월 국제유가]** 미국 재정절벽 일부 타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 **[13.1월 국제곡물과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상승세

3) 재정

- **[12년 3/4분기 관리재정수지]** 전년 동기대비 15.3조 원 악화된 23.6조 원 적자
- 12월 말 기준 연간계획 276.8조 원 중 270.5조 원 집행(집행률 97.7%)

4) 해외경제

- **[중국]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재정불안·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 등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여전**
- **[미국경제]** 12.4/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 속보치)이 $\Delta 0.1\%$ 로 09.2/4분기 이후 처음으로 (-) 기록하였으나, **생산·소비·주택시장 등 경제지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
- **[중국경제]** 수출과 소비 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2년 만에 반등하는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일본 경제]** 수출 부진 지속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소매판매·산업 생산** 등을 중심으로 실질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유로경제]** '12.12월 소매판매가 **12.4월 이후 최대 감소세**(전월대비 $\Delta 0.8\%$)를 보였으며, '13.1월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18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5) 민간소비

- **[12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속보치)]** 전기대비 0.8% 증가(전년 동기대비 2.8% 증가)

- **[12.12월 소매판매]** 내구재가 증가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1.1% 감소(전년 동월대비 1.5% 증가)
-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비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

5) 기타부문

- **[12.12월 중 광공업생산]** 영상음향통신·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월대비 1.0% 증가, 서비스업생산은 운수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1% 증가
- **[12.12월 중 설비투자]**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9.9% 증가
- **[13.1월 중 수출]** 對중국·아세안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 수출입차도 흑자세 지속(8.7억 불 흑자)
- **[12.12월 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전월대비 0.1p 상승,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
- **[13.1월 중 국내금융시장]** 4분기 기업실적 악화와 외국인 자금유출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
- **[13.1월 중 주택시장]**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Delta 0.3 \rightarrow \Delta 0.3\%$)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0.3 \rightarrow 0.3\%$)

□ 농촌 현장의 소리

○ 경기북부 폭설로 인한 피해 급증, 농로 제설작업 시급

- 경기 북부지역은 폭설로 인해서 많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음. 하우스 위에 있는 눈을 치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눈길과 고랑의 분별이 어려워 농로에 차가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차가 다니는 큰 도로는 제설작업을 하는 반면, 캄캄한 농로는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임. 농로 제설작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함.<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촌지역 소외된 학교를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활용

- 이번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있었는데, 신입생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발생함. 전교생이 60명 미만이면 폐교가 되는 기준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임. 대도시에서는 시골 학교로 유학을 온다는데 시골의 산촌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큰 걱정임.
- 시골의 학교는 그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친목과 화합을 매개하는 구심체가 되는 곳임. 이런 역사와 지역 문화를 간직한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니 그 대책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기 바람.
- 해가 갈수록 폐교하는 학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폐교 기준의 재조정, 학교 시설 이용의 다양화, 지역문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대안마련 등으로 이런 악순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경기 안성, 임충빈>

○ 농업인 건강관리 위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등 필요

- 농촌사람들도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음.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는 농촌 특성상 서로 술을 권하여 취하기도 하고, 습관화된 흡연을 끊지 못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서서히 약해짐을 느낌. 개인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같은 곳에서 이동식 안마기나 물리치료 등을 해주는 방법도 좋을 듯함.<제주 서귀포, 김상우>

○ 어른들의 흡연·음주문화는 개선된 반면, 청소년의 흡연은 증가

- 현재 농촌지역에 음주나 흡연에 많은 변화가 있음. 경로당에는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옛날에는 주로 술을 정신없이 많이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건강을 위하여 그런 일이 사라졌음. 오히려 커피문화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식사 전·후 만나면 커피 한잔하자는 인사가 생활화되었음. 어른들은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청소년들은 흡연이 더 늘어나는 사회풍습이 생겨나고 있음. 학생들의 철저한 지도면담, 교육이 필요함.<경북 청송, 박용순>

※ 본 자료는 2월 4일~8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냉동채소 수입 급증...국내 생산기반 위협



- 값싼 중국산 냉동 양념채소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은 급격히 위축. 냉동상태로 수입하면 신선채소로 수입할 때와 견줘 관세율이 10분의 1로 낮아져 큰 차이 발생, 대형음식점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냉동채소 선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주요 양념 채소류 가운데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물량은 매년 늘어나 최근 신선채소 수입물량을 크게 앞질러 품목별 수입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 차지. ▲냉동고추(27%) 수입량...관세가 건고추(270%)의 10%에 불과. 2003년(연산기준 8월~이듬해 7월), 1만2,355t → 2010년, 3만4,148t → 2011년, 4만1,341t(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으로 급증. 이는 2003~2011년 연간 건고추 수입량(4000~1만t)의 4~10배. ▲냉동마늘 수입량...2003년(연산기준 5월~이듬해 4월), 2만3871t → 2011년, 4만9,220t으로 가파른 상승세. 2011년 통마늘 3만1,747t, 간마늘 2,038t, 초산조제 4,272t, 건조 2,060t 등이 수입된 것을 고려하면 냉동마늘 수입이 월등. 신선 통마늘 수입관세가 360%인 반면 냉동은 27%에 불과. ▲냉동대파 수입량...2003년, 1만734t → 2012년, 3만3,314t 증가. 고추 재배면적 (2003년) 5만8,000ha → (2011년) 4만3,000ha, 마늘 재배면적 (2003년) 3만3,000ha → (2011년) 2만4,000ha로 8년 새 각각 25.8%, 27.2% 감소 또한 2003년 재배면적이 1만4,000ha에 육박하던 대파는 2012년 9,500ha로 감소 신선채소에 부과되는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저율관세의 냉동채소 수입은 갈수록 늘어 국내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전망

자료 : 농민신문(2013.2.8)

□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풍수에 보험이 든든한 '안전막'

-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국비보조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는 효자노릇을 토포.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의 가입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장과 달리 농가주택과 온실 등 시설물 피해에 국한, 특히 농촌·어촌·산촌·도시 등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농가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농·임업용 목적의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 온실은 모두 가입 가능. 또한 종류는 보험가입 금액 70%보상형과 기준보험가입금액 90%보상형이 있으며, 개인 부담 총 보험료의 55~86%는 정부가 지원. 2012년의 경우 30만3,674건의 농가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가입했으며, 총 94억7,000만 원이 정부지원 보험료로 지급. 하지만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농가는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지원 예산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 시행 첫해인 (2006년) 국비보조 예산 16억7,000만 원, 가입실적 1만7,487건 → 매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 → (2012년) 94억7,000만 원으로 예산 증가, 가입실적 30만 건을 넘어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125억4,500만 원의 국비보조 예산이 책정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고조

※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500㎡(약 150평)규모 철재 비닐하우스의 경우>

- 70%보상형...총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연간 25만2,700원(정부보조 15만6,700원, 62%)+자부담 9만6,000원, 38%). 하지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가지 자연재해인 풍수해로 인해 가입농가가 피해를 받은 경우 337만5,000원 보험금 수령
- 90%보상형...연간 총 납부보험료 32만5,000원(정부보조 17만8,800원, 55%+자부담 14만6,200원, 45%), 7가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434만 원 보험금 수령

<풍수해 보험 가입농가들은 7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

- 태풍...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할 때

- 호우...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일 때
- 홍수...상시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수 등의 물이 범람해 통상 물길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 증가를 초래할 때
- 강풍...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될 때(단, 산지는 풍속 17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 될 때)
- 풍랑...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 폭풍해일...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따르며, • 지진해일...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 할 때
- 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이 될 때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2.7)>

□ '제1호 사외적협동조합' 탄생

-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이 1.25일, 농식품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탄생. 도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수직농장은 도심의 건물 안에 수직형태로 농장을 조성해 친환경 LED조명 및 온도·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갖춰 필요한 농작물을 맞춤형으로 재배. 이번 설립에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명이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 향후 농장 운영 수익금은 경로당·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계획. 이번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

※ 지역주민의 권익·복지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2.6)

□ “농지연금 실수령액 더 늘어난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면제에 이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농지연금액을 감정평가방법 전환 추진**...고령 농업인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액이 상당 수준 늘어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농지연금이 시행 2년 만에 2,202명이 가입하는 등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연금액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밭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농지범용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기반조성사업을 확대**...간척지에 첨단 원예단지과 채종단지, 친환경 축산단지 등 수출형 미래농업복합단지를 조성, 유희농지를 재정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지지원을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금년도 농어촌발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4조 2,035억 원. 이 중 용수관리부문 9,991억 원,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경지정리 부문 1조3,310억 원, 영농규모 확대지원과 경영효율화, 농지연금과 경영회생 등 농지은행부문 8,822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13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 발표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2.6)

□ 안파경기침체소비약화로 당일 반입 농산물 제고 '심각'

- 가락동도매시장, **지속된 한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약화**로 당일 반입 농산물이 소진되지 않아 제고 심각, 이 영향으로 중도매인들은 경매 시 낙찰물량을 조절, 일부 중도매인들은 소비부진으로 자금이 제 때 회전되지 않아 이후 경매 시 추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어려움 호소. 가락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한파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반입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식자재 납품업체, 재래시장 소상공인, 지역 마트 관계자 등 소비 위축. 한편 사과와 배 등 명절 제수과일도 산지 저장량 부족으로 평년보다 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과일류는 소파중심의 소비와 날개 구매, 혼합구매 등 예상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2.5)

※ 본 자료는 2013년 1월 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80.1억 불, 전년대비 4.1% 증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13.1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5억 불로 전년 동월(5.1억 불)대비 29.0% 증가
 - 부류별로는 **신선농식품 89.1백만 불, 가공식품 364.1백만 불, 수산물 201.7백만 불**로 각각 전년 동월대비 **11.2%, 28.3%, 40.3% 증가**

<2013년 1월 부류별 농림수산물수출 실적>

단위: 백만 불, %

구 분	'11년 1월	'12년 1월	'13년 1월(잠정)	증감률(%)
합 계	526.7	507.8	654.9	29.0
신 선	63.8	79.9	89.1	11.2
가 공	320.4	284.1	364.1	28.3
수 산	142.5	143.8	201.7	40.3

- '13.1월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참치, 켈런 등 대형품목의 수출 상승세 지속**에 기인

□ 부류별

- **[신선농산물]** 파프리카(7.8백만 불, 13.7%), 딸기(6.9, 46.5), 유자차(4.7, 17.3), 사과(0.6, 47.5)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장미(1.3, △45.8), 배(2.1, △29.6), 인삼(10.4, △33.0)은 감소
 - **(파프리카)** 생산량 증가로 수출물량 증가
 - **(딸기)** 수출품종(매향)이 작년 '12.12월부터 본격 출하되면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임.
 - **(유자차)** 일본에서는 감소세이나, 중화권은 판촉행사 영향 등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

- **(화훼)** 장미(1.3백만 불, △45.8%), 백합(1.2, △27.6), 국화(0.4, △27.3) 등은 엔화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수출 감소

- **[가공식품]** 켈런(35.4백만 불, 114.5%), 설탕(24.2, 48.5%)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8.3% 증가
 - **(비스킷)** 홍콩,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65.9% 증가
 - **(켄런)** 주요 수출국인 중동 국가들과 홍콩 등에서 높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수출 증가
 - **(막걸리)**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출 감소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81.2% 증가하여 올해 2월1일부터 생막걸리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막걸리 중국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 막걸리 국가별: 일본(1.6백만 불, △63.1%), 미국(0.2, △4.4), 중국(0.1, 81.2)
- **[수산물]** 참치(69.3백만 불, 207.4%), 김(20.5, 57.7)의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40.3% 증가
 - **(참치)** 어획량 증가 및 단가상승, 인도양 조업선 신규투입 허가 등의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수출 증가
 - **(김)** 마른김의 태국 수출 증가와 조미김이 FTA 체결로 미국 수출에 강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물량 증가
 - **(오징어)** 유럽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의 오징어 재가공산업 위축으로 대중국 수출이 54.4% 감소하였고, 대미 수출 또한 저가 중국·인도산과의 경쟁으로 인한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 국가별

- '13.1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은 수출국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중화권과 아세안 지역이 크게 증가**
 - **(일본)** 전년 동월대비 8.8% 증가한 181.2백만 불 달성
 - ※ 호조품목: 참치, 제3맥주, 파프리카 / 부진품목: 김치

- (중국) 전년 동월대비 49.1% 증가한 115.6백만 불 달성
※ 호조품목: 설탕, 조제분유, 커피조제품 / 부진품목: 인삼
- (아세안) 전년 동월대비 44.2% 증가한 95.5백만 불 기록
※ 호조품목: 참치, 김
- (미국)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한 53.7백만 불 기록
- (EU) 전년 동월대비 3.1% 증가한 35백만 불 기록

<2013년 1월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불, %

구 분	'11년	'12년	2012.1.1~1.31		2013.1.1~1.31		증감률		비 중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7,691.3	8,007.6	253.3	507.8	324.1	654.9	27.9	29.0	100.0
일 본	2,374.2	2,389.5	60.2	166.6	72.6	181.2	20.6	8.8	27.7
중 국	1,380.0	1,279.0	66.1	77.5	72.0	115.6	9.0	49.1	17.7
미 국	599.8	664.1	16.1	48.3	14.0	53.7	△12.9	11.2	8.2
러시아	242.7	259.2	6.9	14.1	6.8	13.3	△2.1	△5.5	2.0
홍 콩	305.5	297.3	12.9	21.6	20.3	34.7	57.6	60.2	5.3
대 만	261.0	253.8	18.8	17.5	27.4	24.3	45.4	38.4	3.7
ASEAN	1,031.9	1,193.1	35.0	66.2	51.8	95.5	48.0	44.2	14.6
E U	362.9	419.5	10.7	34.0	13.9	35.0	29.9	3.1	5.4
기 타	1,133.3	1,252.1	26.6	62.0	45.3	101.6	70.7	64.1	15.5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